2010년 3월 10일 11회 연구집담회

재일조선인 귀국문제: 쟁점과 재론

발표일시 및 장소: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3시 / 국제대학원 GL룸

발표자: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박정진

토론자: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오일환

발표내용:

오늘 집담회에서 일본의 음모와 계획, 북한의 노동력 부족, 한국의 저항과 고립이라는 쟁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냉전기 약 10만 규모의 재일조선인이 집단적으로 북한으로 귀국한 것이 재일조선인 귀국 문제였습니다. 종래의 해석은 재일조선인의 생활고 및 이로 인한 희망의 상실의 자발적으로 귀국운동을 촉발시켰고, 여기에 노동력을 필요로 하던 북한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과연 재일조선인 귀국문제의 타이밍과 규모, 성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노동력의 부족은 당시 북한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자면 충분한 이유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재일조선인의 생활고 문제 역시 단순히 이런 측면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레벨 수준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문제는 일본, 북한 그리고 남한 및 미국과 소련과의 관계 속에서 국제적인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논의에서 집단적 귀국결의(1958.8), 각의양해(1959.2), 제네바 회담(1959.4~6)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각각 북한의 진의와 소련의 연대, 일본의 의도와 적십자국제위원회의 개입, 한국의 대응과 미국의 중재라는 차원의 문제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로 귀국사업 이후 한반도와 일본관계의 냉전적 재편과 북일관계의 굴절, 동북아시아 지역냉전과 귀국문제로서 시각의 확대와 접근의 다양화 필요성, 사실의 확정과 논쟁 구도로서 한국 내 이데올로기 논쟁의 재생산 가능성등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론내용: 북송문제에 있어서 시대적 범위를 넓힌 점, 행위자의 문제를 국가적으로 확장한 점등은 이 관련 연구의 지평을 넓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행연구가 역사학 분야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료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두 가지 작업을 하고 있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가지 코멘트를 하고자 합니다. 발표에서는 북송, 귀국 문제를 일본이 처음부터 의도했는가, 아니면 일본적십자사가 주도를 하고 추진했느냐 양 극단의 입장을 소개하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이나 음모 양 극단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주설, 우발설등을 포함해서 필연과 우연, 각 시기별 정치적 국면에 따라서 각 국가별 행위자의 일치된 행위의 소산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닐까하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련이나 미국의 역할에 대해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인민외교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 코멘트를 하자면, 이 발표에서 너무 많은 행위자들이 들어가 있어서 입장이 확연히 들어나지 않은 듯 합니다. 만약 북한의 입장에서 본다면 북송을 어떻게 의도했고, 기획했고,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보여준다면 좀 더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인 처들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생각하시

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남기정 교수) 의미있는 작업이고 꼼꼼한 작업입니다. 질문은 59년부터 61년까지 75,000명 정도가 귀환했다고 하는데 같은 시기 한국으로 귀환한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그 래야 이 숫자의 의미를 밝힐 수 있을 듯 해서요. 다른 질문은 두 가지 논점을 제시하고 그 입장들을 반박하시는데, 본인의 의견이 무엇인지는 확실히 들어나있지 않은 듯 합니다. 냉 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요? 관련해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굉장히 복잡한 냉전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한 것으로서 북한의 끌어 들임이 문제가 커진게 아닐까 하는 해석이 가능할 듯 합니다. 노동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과 기술력의 문제로 보자면 소련으로부터 일본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 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한영혜 교수) 귀국영접회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한일협정 이 후에는, 즉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맺어진 후에는 어떤 명분으로 귀국이 가능했는지 궁금합니 다. 이 사건에 관련된 혁신계의 사람들이 이후 북한을 압박하는 자세로 변하는데 이에 대해 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한지요? 이 사건이 가져온 재일조선인 사회의 변화는 어땠는지요?

(임채섭 교수) 당시 재일조선인이 느낀 경제적 부담이 과연 얼마나 되었는지가 알고 싶습니 다. 북한의 노동력부족과 관련해서 당시의 천리마 운동이 성공하고 있음을 들어 노동력 부 족이 없었을거라 말씀하셨는데, 동원체제 속에서 오히려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지 않았을 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교수) 일조 수교 회담의 실패는 왜인지?

답변: 팩트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요. 전후 직후의 일본에서 북한으로 개입송환이 있었 습니다. 400명 전후가 갔습니다. 재일조선인들이 느꼈던 경제적 부담은 생활보호법에서 제 외되었던 점이 오히려 더 컸습니다. 귀국영접회는 직장배치라던지 거주지라던지를 다루기 위한 범국가적 조직이었습니다. 남선생님 질문 관련해서 1000명 정도가 한국으로 갔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귀국문제를 냉전이라 는 하나의 단일한 틀속에서의 인과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전이 형성되는 과정으 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나 중국이 이 당시 북한에 영향력이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자본과 기술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귀국문제는 한국과의 관계와도 연관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답변이 부족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